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나를 다시 쓰게 한 글쓰기]

이름	최순필
전공	인공지능학부
학번	20252914
참여 프로그램	■ 1-on-1코칭 (서연주교수님)

1. 글쓰기,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다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다시 대학을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전공하기로 했고, 그렇게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글쓰기 수업을 수강할 때만 해도, ‘문과 출신인데 글쓰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도 글 쓰는 건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글을 잘 쓴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주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얕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글은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고, 논리적인 구조 없이 그저 일기처럼 써 내려가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다니. 하지만 부끄러움뒤에는 감사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 글말교실, 생각을 글로 만드는 힘을 주다

그런 의미에서 글말교실은 저에게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글쓰기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셔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추가로 뭘 더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해보니, 오히려 수업보다 더 개인적으로 깊은 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제 글을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어디서 논리 흐름이 어색한지,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자연스러운지, 피라미드식 구조는 왜 중요한지 등 정말 디테일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쓴 글이 그냥 평범한 글이 아니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글쓰기 같은 교양수업이 이렇게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오직 전공 공부, 특히 코딩과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는 데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 제가 가장 많이 변화한 수업은 바로 이 글쓰기 수업이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법을 넘어서, 생각을 정리하는 법, 말이 아닌 글로 설득하는 방법, 내 생각을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기술을 배운 수업이었고, 그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느꼈습니다.

3. 다시 꺼내 본, 나의 꿈

처음에는 단순히 코딩을 배우고, 인공지능 기술을 익혀서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쉽게 답할 수 없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기술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더 중

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글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양 수업으로만 여겼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수업이야말로 제 꿈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방향을 스스로 다듬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